

“중도사상 서구사회 처방전”

성철선사상연구 ‘선불교와 해체론시대...’ 세미나

최근 철학·불교학계에서 선불교와 서구 해체철학의 유사성을 찾는 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5월3일 연세대 인문관에서 ‘선불교와 해체론시대의 서구철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준비해 관심을 끈다.



윤원철 교수



이승중 교수

“돈오돈수론 문화비평 접목가능”

‘나’ 해체 ‘자아’ 해방...禪과 비교

‘절대 이상’과 ‘자아 중심’을 강조해 진어(眞如)를 고정화했던 서구철학이 해체철학에 이르러 ‘이상’과 ‘나(我)’를 부정하고 ‘타자(他者)’로 관심을 옮겨 불교의 공(空) 연기론(緣起論) 등과 가까워졌다는 게 학계의 지적. 따라서 이 세미나는 심리학 문화비평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선불교와 해체철학의 유사성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다. 미리 나온 두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문화비평으로서의 돈오돈수론’ 주제 발표에서 ‘개척이라는 순수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문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사회

와 생활풍조에 관한 담론이 은연 중에 남아있어 성철선사의(선문정로)에 돈오돈수론도 문화비평의 신(新)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교수에 따르면 현대인의 세계관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반면 ‘망념(妄念)과 분별(分別)로 가득찬 대중을 위해 불교는 중도불이(中道不二) 사상을 통해 완전한 세계관을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교수는 ‘돈

오돈수론은 분별심이 더욱 심화된 현대사회를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중교수(연세대 철학과)는 ‘동일자와 타자’에서 ‘서양의 전통철학은 ‘나(我)’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질서를 확립해 ‘타자’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아만을 강조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수학·물리학·언어학 등에서 ‘차이성’을 발견한 서양철학은 ‘이

성과 감각’ ‘나와 타자’와 같은 분별심의 오류를 알게되는 계기가 됐고 ‘나’의 해체는 결국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얽매어 있는 ‘자아’를 해방해 서양철학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서양철학의 중심이 자아(自我)에서 타자(他者)로 이동된 것은 선불교에서의 깨달음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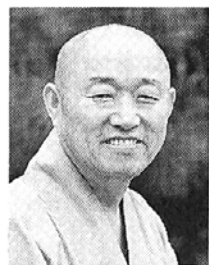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참실재의 자각과 지성활동의 왜곡’ 박순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참과 불의 관계’ 이광준씨(동서심리학과 연구소장)가 ‘선심리학과 해체철학’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가 ‘선의 깨달음과 이상의 자각’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범망경



성우 (교계사 연산원인 율주)

어느 바람결에 구름 모일지, 어느 구름결에 비 올지, 어느 구름결에 바람이 불지, 어느 구름결에 구름이 사라지고 있는가.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소 그저 평범한 수행승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다. 특별나게 경전을 잘 알아서 강사도 아니고 참선을 골똥하게 하여 선사도 아니고 또 계율을 배우자 울사도 아닌 그저 스님이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사미시절 불교전문강원에서 경전을 인연짓고 보니 부처님 말씀에 경을 쓴 삼장이라고 배웠는데 강원이란 곳에서는 경만 가르치고 율을 가르치지 않아 그것도 한 번 보았으면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야만 해 인사를 찾아가 어느 스님께 이야기하여 율장을 보게 되었다.

그해 겨울, 율장을 배우야 하는데 책이 없으므로 백련암 성철선사의 장경각에 갔어 잠든 속장경 속의 율부를 빌려오게 되었다. 그것을 매일 베껴쓰는 일이 일과와 대부분이었다.

그때 <범망경>을 접하였다. <범망경>

깨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거나 팔지 말라 등의 기본적인 오계와 함께 여섯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일곱째 자기를 높이지 말라, 여덟째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아홉째 상대방의 참회를 성내지 말고 잘 받아주라, 열번째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등이다. <범망경>에서는 이 십중대계야말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확실한 지표임을 설하고 있다. 출가·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금언이 아닐 수 없다.

흔히 계율을 지니면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에게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잘못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계율은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가는 좋은 사다리이다. 계율을 가지므로 불자가 되고 또 크나큰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범망경>에도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불계(佛戒)에 삼해 있으므로 계를 받은 중생은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 대

“김시습, 해동화엄전통 계승”

김지건박사 선무학술논집 6집에 발표

철학·의학·문학·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禪)을 연구한 <선무학술논집(6집)>이 출간됐다.

‘김시습(1435~1493)의 <화엄석제>의 주석적 연구’에서 김지건박사(전통불교연구원장)는 ‘김시습은 의상(625~702) 균여(923~973) 지눌(1158~1210)로 이어진 해동화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시습이 <화엄석제>에서 배후(797~870)와 장관(788~838)의 저술을 인용한 것은 화엄의 성기

(性起)와 선(禪)의 깨달음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며 ‘사유세계에서 화엄을 바라본 것은 의상·균여·지눌의 전통을 따른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최순택교수(원광대)의 ‘한국선서화 연구’는 신행(704~779) 김명국(1600~1662) 탄연(1070~1592) 초의(1786~1866) 경봉(1892~1982) 등 선사들의 시·오도송·그림·글씨를 집대성한 현대 선승들의 선묵·선화의 특징과 양식이 2백여개의 선사화의 도판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 논집에는 이외에도 김철교수(원광대)의 ‘선무의 기초수련에 관한 연구’ 오종근교수(동신대)의 ‘선과 시의 사적 고찰’ 등 논문 11편이 수록됐다. <속>

학술단신

40여권의 전적(典籍)에서 채록됐다.

‘원효片文蒐逸’ 펴내
원어번역 원효선사의 가르침을 국내외 대장경과 저술에서 찾아 묶은 자료집이 나왔다.

김상현교수(동국대)가 최근 발표한 ‘원효편문수일’(元曉片文蒐逸)은 韓·中·日의 대장경과 불교관련 저술 등에서 ‘원효운’(元曉云)으로 밝힌 총 53개 인용구를 모아서 정리했다.

인용구는 <삼미특경소>(경총) <범망경고적기>(태현) <교분기원통초>(균여) <원통선불론>(지눌) <대방광불화엄경>(장관) 등

(眞經碑)에 나타난 노인(奴人)의 성격 검토’ 등을 수록했다.

‘황룡사종 고려대 녹였다’
경주시가 황룡사대종 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황룡사종은 바다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고려대 녹여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훈원 이병호명예교수는 22일 <삼국유사> 황룡사종 관계기사에 고려 숙종때 심한 균열을 보인 황룡사종을 녹여 일부를 화해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작은 종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출·재가 누구나 지켜야할 계목 수록 “계율은 어둠서 밝음 향하는 사다리”

의 갖추어진 이름은 <불설범망경보살심지계품>이다. 범망경을 알타스님에 강의를 받았다. 그리고는 접어들었다. 그게 30여년전 일이다. 그런데 저지나해 해인강원 강주스님이 학인들을 위하여 특강을 해 달라기에 그저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날짜가 잡혔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큰일났다 싶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적이던 중 우연찮게 <범망경>에 관한 좋은 자료를 발견하였다. 여지껏 우리나라 스님들이 <범망경>에 관하여 말씀이나 저술할 때 중국 스님들의 저서를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원효스님 <범망경보살계본사기>, 태현스님 <범망경고적기>, 의적스님 <범망경계본소>, 승장스님 <범망경술기>를 구하게 되어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는 대만, 홍콩, 중국에서는 단행본으로 나와 읽혀지고 있다.

<범망경>은 대승불자로서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니고 지켜야 할 계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열가지 무거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십중대계는 불교윤리의 대표적인 계율로서 보살대승의 대계를 밝히고 있다. 십중대계란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가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셋

각을 이룰 수 있나니 대중들은 모두 다 공경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고 하였다.

불자의 큰 소원은 보리를 이루는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을 만드는 일은 불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보살계본 귀경삼보에 보면 ‘계(戒)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능히 무명장야(無明長夜)의 어두움을 없애며, 계는 보배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비추어 다하며, 또한 계는 마니주와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느니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인간의 근본 무명에서 속히 벗어나 크나큰 진리를 체득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기 어렵다는 핑계를 외치한다. 중생은 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들에게 인연을 가져다주는 대승보살계법이야말로 부처님 자비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일체중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설령 지금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보리로 나아가는 좋은 씨앗임을 명심해 <범망경>을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세계 20여 박물관 소장 불상·회화·한글·주방

『아시아 미술』

‘아시아 미술(Asian Art)은 중국 영국 인도 네팔 등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미술품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네팔의 ‘무스탕 박물관’ 티베트의 ‘조강사원’ 영국의 ‘국립박물관’ 미국의 ‘바바라 미술관’ 등 세계 20여 대형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불상·티베트경전 표지 등의 불교미술품의 사진자료를 제공해 준다.

‘아시아 미술’ 사이트는 불교미술관련 학술논문도 제공한다.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논문에는 ‘티베트의 불화연구’ ‘중국의 문화연구’ ‘네팔의 불상 연구’ ‘몽고의 불교미술 개관’ ‘티베트의 불교의식 미술 연구’ 등 15편에 이른다.

이외에도 화랑 ‘삼발라 고대건축’ ‘인디고 화랑’ ‘히말라야’ 등과 같이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관련 화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미술’은 <http://asianart.com/index.html> 이다.

기쁨 맑기는 책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중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33분/르스님/범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율하 스님권 신국판 3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염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르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르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깨달음이다.

기쁨 맑기는 책 ②

삶은 꿈가 아니다

삼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4/범어집

해원 율하 스님권 신국판 2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 위한 경전 강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재일 지음 신국판 30쪽 / 값 8,000원

뿐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딱히 났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명과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載高)로 건너고 금강의 현(金剛)으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와 금강의 현,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주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였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중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입부), 737-0691 (편집부) 팩스 : (02) 737-0696